일본의 사회과학자들과 '전후 사회과학'의 형성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남기정*
profnam@snu.ac.kr

Contents

Ⅰ. 서론
Ⅱ. 사회과학연구소의 설립과 인적구성
Ⅲ. 사회과학연구소의 사회과학
Ⅳ. 결론

Abstract

本研究は、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を素材に日本の「戦後社会科学」の形成を知識社会学の手法で追跡し、その意義と限界を検討しようと試みたものである。社会科学研究所の誕生は、戦前の総力戦体制のもとで弾圧された社会科学という用語を敢えて研究所の名称として用いることによって、戦前の日本と決別し新生日本の再生を象徴する事件であった。その社会科学研究所には、戦前においてその思想や態度を疑われ大学から追われた研究者が含まれていた。そのことからマルクス主義との親和性が初期の社会科学研究所の一つの特徴として現れている。また社会科学研究所には、京城帝大や北京大学など「外地」の大学から撤退し引揚てきた研究者などが初期のメンバーとして含まれていた。しかし、彼らの戦後の作業のなかに、戦前の植民地経験が深く根を差した形で分析された痕跡はあまり見られない。それは、社会科学研究所が目指した目標とも関係するものとして注目すべきである。即ち、マルクス主義者であれ、近代主義者であれ、社会科学研究所に集まった研究者たちは西洋近代に起源をおく社会変革への道程を社会科学的に明らかにし、日本の目指すべき進路として提出することを自らの使命としていたからである。一方、社会科学が何であるべきかという、社会科学そのものの目標をめぐる論争は余り活発に行われなかった。初期、研究所に集まった多様な構成によるものと見られる。

社会科学研究所の社会科学がもつ特徴は次の三つに要約できる。第一、それは「平和」と「民主主義」に学問が貢献すべきであるという時代的召命を鋭く意識しながら展開した。第二に、欧米を事例にした研究に対比し、比較研究の対象としてのアジア地域研究は、欧米の理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부교수, 현대일본정치.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0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論から距離を置き内在的理解を求めるものであった。第三に、社会科学研究所の社会科学の限界として、普遍理論化の努力が不足したという点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限界とは別に、社会科学の方法については明確な認識の共有があった。「比較、総合、実証」という三点セットの社会科学方法論は「社会科学研究所の社会科学」をまとめる最小共倍数であった。特に比較研究は社会科学研究所がもっとも得意とするものであり、その素地と原型が初期の15年間に整えられた。ここから「方法としてのアジア」を逆転させた「方法としての日本」ともいうべき、社会科学研究所の目指した新しい志向を発見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

Key Words : 戦後日本、社会科学、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方法としての日本
(Post-war Japan, Social Sciences, The University of Tokyo, Institute of Social Science, Japan as Method)

I. 서론

이 글은 전후 일본에서 '사회과학'에 대한 '학지(學知)'가 형성되고 전개되는 과정을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를 소재로 하여 지식사회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1] 지식사회학이란 지식과 사회 사이의 상호관계를 '지식의 사회적 피제약성'에 주목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2] 사회과학연구소의 사회과학은 한편으로는 전후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도쿄대학이라는 제도 속에 자리매김해야하는 사회적 제약에 대응하는 가운데 형성 전개되었다.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가 부딪쳤던 이러한 두 가지의 피제약성은 연구소의 지향과 내용을 구속하고 있었으며, 거꾸로 일본의 '전후 사회과학'의 전개에서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가 가지는 독특한 위상으로 인해 동 연구소가 산출하는 연구들은 전후 일본의 사회과학의 지향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우선 시대적 과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전후 사회과학'은 패전 후 일본이 '제

1) '학지'란 '<학>문의 내재적 이해를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지>의 실천이라는 문맥을 이해하려는 복안적 시점'을 염두에 둔 용어이다. 酒井哲哉(2006)「編集にあたって」酒井哲哉編『「帝国」編成の系譜―「帝国」日本の学知』岩波書店, p.v.

2) M. Scheler(1980), "Probleme einer Soziologie des Wissens", *Die Wissensformen und die Gesellschaft*, ed.3, Vol.8, Bern, 1980, p.17. 이을상(2011)「막스 셸러의 지식사회학: 그 철학적 토대와 전개」『지식의 형태와 사회1』한길사, p.7에서 재인용.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국' 일본의 유제를 극복하고 '민주' 일본의 탄생을 견인하는 시대적 소명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전후 사회과학'의 의의와 한계를 논하는 것은 바로 '전후 일본'이 지녔던 가능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드러내는 일이다. 한편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는 1946년에 개설된 대학 부치연구소(대학본부 직할 연구소)로서, 전후 일본사회가 변곡점을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전파해 온 일본의 대표적 대학연구소이다.[3] 그런 의미에서 동 연구소는 사회과학자들의 집단이 대학 부치연구소로서 존립해야 하는 근거를 스스로 마련해야 했으며, 존재 이유의 증명 그 자체가 존립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제까지 '전후 사회과학'에 대한 논의는 주로 오츠카 히사오(大塚久雄)의 경제사, 가와시마 다케요시(川島武宜)의 법사회학,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真男)의 정치학 등 제 각각 '자신의 강좌에서 골목대장(それぞれの講座のお山の大将)'[4]이 된 스타급 사회과학자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5] 이들은 '전후 사회과학'의 태두(泰斗)로서 일본의 사회과학이 이르렀던 도달점이었다. 이 글에서는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에 모여들었던 사회과학자들을 다룸으로써 이들 봉우리를 에워싸고 펼쳐졌던 숲을 보고자 한다. 오츠카, 가와시마, 마루야마 등에 대한 연구가 '전후 사회과학'의 높이를 연구하는 것이라면, 이 글은 그 넓이를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연구소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조수를 거쳐 정년퇴임까지 사회과학연구소에 재직했던 두 명의 내부 구성원에 의한 연구와 한 명의 전직 내부 구성원에 의한 연구가 있다. 먼저,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의 연구가 있

3)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의 연혁과 구성 및 현황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jww.iss.u-tokyo.ac.jp/ (검색일, 2012.12.30.)

4) 「座談会・社会科学研究所の30年」『社会科学研究所の30年—年表・座談会・資料(이하, 社会科学研究所の30年)』(1977), p.35.

5) 이들에 대한 개별 연구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다만 이들을 소재로 하여 '일본의 사회과학'을 규명하려 했던 연구로 바셰이와 코시만의 연구가 있어서 이 글의 목적과 관련하여 참고가 된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한국에서 '일본의 사회과학'을 검토한 것으로 한영혜, 이석원, 고희탁의 연구가 있다. アンドリュー・E・バーシェイ(2007)『近代日本の社会科学—丸山真男と宇野弘蔵の射程』NTT出版; ヴィクター・D・コシュマン(2011)『戦後日本の民主主義革命と主体性』平凡社 ; 한영혜(1991)「일본 사회학의 형성과 전개: 성립에서부터 제2차 세계 대전기까지」『사회와 역사』32권 ; 이석원(2010)「위기의 사회과학: 전간기(戦間期) 일본에서의 협동체주의와 지역주의」『역사문제연구』23권 ; 고희탁(2010)「전후 일본의 정치학 정체성론 연구: 과학성, 자율성, 주체성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일본연구논총』31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6] 와다의 연구는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 야마노우치 이치로(山之内一郎), 우노 고조(宇野弘蔵) 등 초창기 리더들의 지나친 자기확신과 그로 인한 확집, 연구소 차원의 공동의 인식 형성의 지체, 외지 특히 경성제대와 베이징대학 출신 연구자들의 인식의 한계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와다는 초창기 구성원 가운데 식민지 대학에서 근무했던 연구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식민지배 문제가 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주제로 진지하게 연구되지 못한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시다 다케시(石田雄)의 논평이 있다.[7] 이시다는 연구소 창립 60년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시기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제1기는 창립 이래 196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이다. 내우외환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장래 사회과학 발전의 기초가 될 개별 연구가 축적된 시기로, 임박한 위기에 대응하여 사회과학연구소의 존재의의를 확인시킨 것이 1963년에 출판된『사회과학의 기본문제(社会科学の基本問題)』상하 2권이었다. 제2기는『기본적 인권의 연구(基本的人権の研究)』전5권(1968-68년),『전후개혁(戦後改革)』전8권(1974-1975년),『복지국가(福祉国家)』전6권(1984-1985년) 등 굵직굵직한 공동연구 성과가 제출된 시기였다. 이시다는『현대일본사회(現代日本社会)』전6권 시리즈가 기획 준비되던 1980년대 중반부터 제3기로 구분하고 있다. 그 이유로 이전의 성과들과『현대일본사회』사이에 비판의식의 약화라는 문제점이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8]

다음으로 후쿠시마 신고(福島新吾)의 연구가 있다.[9] 후쿠시마는 1921년생으로 센슈대학(専修大学) 교수(정치학)로 재직했으며, 1947년부터 54년까지 사회과학연구소 조수를 역임했다. 후쿠시마는 '사회과학연구소 설치사유(設置事由)'에 정부와 국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문장이 들어간 것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긴 하나, '소박한 실용주의적 학문관'이 엿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구의 시기적 대상은 이시다가 제1기로 설정한 시기

6) 和田春樹(1980)「戦後日本における社会科学研究所の出発」『社会科学研究』32巻2号.
7) 石田雄(2007)「社会科学研究所の60年と日本の社会科学」『社会科学研究』59巻1号.
8) 石田雄, 上掲論文, p.143
9) 福島新吾(2003)「社会科学としての政治研究―1947~54」『専修大学社会科学研究所月報』486号.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에 집중되어 있다. 설립 초기 조수의 신분으로 야나이하라, 야마노우치, 우노 등을 접하면서 갖게 된 생각들, 공산당에 입당해서 도쿄대학내 직원조합운동을 전개했던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다.

본고는 이들 연구의 연장에서 '사회과학연구소의 사회과학'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시도이다. 시기적으로는 이시다의 시기구분에 따른 제1기를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소 설립 후 최초의 전 연구소 차원의 공동연구『사회과학의 기본문제』상하 두 권이 출판되는 1963년까지이다. 이 책의 출판은 연구소의 존립이유를 내외에 각인시키는 '사건'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비로소 연구소는 안정적 기반 위에 서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검토될 자료는 앞의 두 권에 더해『사회과학연구소의 30년(社会科学研究所の30年)』(1977),『도쿄대학 백년사, 사회과학연구소편(東京大学百年史, 部局史 4, 社会科学研究所)』(1987), 사회과학연구소의 기관지『사회과학연구(社会科学研究)』의 창립15주년 기념호 및 창립50주년 기념호, 초기 사회과학연구소를 구성했던 교수들의 환갑기념호 등이다.

이하 사회과학연구소 설립의 경위와 초창기 인적 구성에서 '전후 사회과학자'들의 면면과 그들이 하나의 연구공동체에 집결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과학연구소의 지향점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그들이 추구했던 사회과학의 성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사회과학연구소의 사회과학'이 일본의 '전후 사회과학'에서 지니는 의의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사회과학연구소의 설립과 인적 구성

2.1. 설립의 경위

사회과학연구소의 창립은 사회과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금기시되던 시대와 결별하고 학문과 대학의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다시 말해 사회과학연구소는 '신생 일본의 건설에 기여하고 대학과 학문의 혁신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사명을 자임하고 탄생한 조직이었다.[10]

10) 東京大学百年史編纂委員会編(1987)『東京大学百年史, 部局史 4, 社会科学研究所』, p.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연구소 창립을 주도한 것은 자칭 '이데알 레알리스트(ideal realist, 이상주의적 현실주의자)' 남바라 시게루(南原繁)였다.[11] 남바라는 패전하던 해 3월에 법학부장에 취임한 뒤, 오키나와전투를 즈음해서 일본의 패전을 예견했고, 그와 동시에 전후 일본의 도쿄대학 구상을 품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구상 가운데 하나가 문과계열의 신연구소 설립 구상이었다. 당시 도쿄대학에는 대동아공영권 건설이라는 국책에 기여할 연구조직으로 전시 하에 신설된 동양문화연구소가 유일한 문과계열 연구소로 설립되어 있었다.[12]

사회과학연구소의 명칭도 남바라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개소식 연설에서 남바라는 그 명명이 '광범한 연구 영역을 가진 사회과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사회과학'이라는 이름에 '좌익적 이론연구의 대명사와 같은 특정한 평가'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감히 사회과학이라는 이름을 걸고 출발했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13] 즉 '사회과학'을 연구소의 명칭에 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새롭다'는 신중론이 있었다. '사회과학'이라는 용어는 일종의 금기였으며, 그 용어에는 '위험함'이 묻어있기 때문이었다.[14]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분위기였기에 사회과학연구소의 설립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패전 이후 '사회과학'의 소생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1946년 4월 18일, 아직 도쿄대학이 도쿄제국대학으로 불리던 시절 본부 사무부로부터 문부성 앞으로 사회과학연구소의 관제제정을 요구하는 「동대서(東大庶) 394호」가 발송되었다. 여기에 「사회과학연구소 관제안」, 「사회과학연구소 조직 및 연구사항」, 「사회과학연구소 설치사유(이하, 설치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서 1946년 8월 28일, 칙령 394호, 「사회과학연구소 관제」에 따라 연구소가 창설되었다. 그로부터 연구소 개소를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실질적으로는 1947년 2월 1일, 개소기념강연회를 개최하면서 연구소는 모습을 드러내었다.[15] 사회과학연구소는 이날(2월 1일)을 창립기념일로 삼고 있다.

---

11) 加藤節(1997)『南原繁—近代日本と知識人』岩波新書, p.5.
12)「座談会・社会科学研究所の30年」『社会科学研究所の30年』, p.31 ; 東京大学百年史編纂委員会編, 前掲書, p.4.
13) 東京大学百年史編纂委員会編, 上掲書, p.6.
14)『社会科学研究(社会科学研究所15周年記念号)』15巻1号 196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창설을 주도했던 남바라, 야나이하라, 와가츠마 사카에(我妻栄) 등이 스스로 내건 사회과학연구소의 의의는 두 가지였다. 첫째, 대학의 사회과학 연구가 현실 위에 깊이 기초를 두어, 확고하고 건실하게 함과 동시에, 둘째, 장래 정부와 '제국의회'에 대해 때때로 필요에 따라 본연구소의 조사연구 성과를 제공하여 국가 정책의 수립에 기여 공헌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16]

이러한 생각이 「설치사유」에 표현되었다. 「설치사유」는 와가츠마 법학부장이 기초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설치사유」에서는 연구소의 설립 목표를 '세계 각국의 법률, 정치, 경제 제도 및 그 사정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조직적 계통적으로 수집하여 엄밀하고 과학적인 비교 연구를 수행함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로부터 연구소가 수행할 연구가 세계 각국의 지역연구, 법학 정치학 경제학 등에 의한 학제연구, 기초자료에 입각한 실증연구, 각국의 사례를 일본의 경우와 대조하는 비교연구 등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비교연구가 강조되었다. '대학에서의 사회과학 연구'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일본)의 현실에 입각하면서 나아가 다른 한편으로 해외 여러 국가의 법률 정치 경제의 실제 정세를 늘 성찰 대조하여, 확고한 지반과 넓은 시야 위에 서서 전진'하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교연구의 성공은 물론 객관적 자료의 충실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실증과 비교에 입각한 지역연구'는 과거 일본의 학문이 총력전 체제에 복속되면서 극단적 정신주의와 일본중심주의에 빠져 객관적 세계정세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했다는 반성에 입각한 것이었다. 따라서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은 단지 학문적 수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앞으로 입법과 시책의 계획 수립과 그 실시를 위해서도 긴요'한 것이었다. 나아가 '설치사유'는 연구소 설립의 궁극적 필요성을 '민주주의적 평화국가로서 국정을 일신'하는 데에서 찾고 있다.[17]

간단히 말하자면 실증과 비교 방법에 기초한 사회과학의 종합적/학제적 연구를 통해 잘못된 국책 수립에 제동을 걸고 올바른 국책을 제언하겠다는 것이 설

15) 上掲書.
16) 東京大学百年史編纂委員会編, 前掲書, pp.7-8.
17) 「社会科学研究所設置事由」『社会科学研究』15巻1号 196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치의 이유였다. 여기에는 사회과학의 실용적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비교와 종합, 실증이라는 세 가지 지향점은 남바라의 개소식 기념 인사에서도 나타나 있다. 남바라는 전전의 학문 공동체가 군부의 통제 속에서 전쟁을 목적으로 한 비과학적이고 왜곡된 연구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반성하고, '순수히 학문적 입장에서 전후의 부흥과 평화민주국가, 문화일본의 건설을 위해 진정으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지향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통감'한 것이 사회과학연구소 창립의 동기였다고 하고, 이러한 전절을 밟지 않기 위해 세계적 비교연구, 법학 정치학 경제학의 종합적 연구, 실제적 조사연구의 세 가지를 사회과학연구소가 지향할 목표로 제시했다.[18]

2.2. 사회과학연구소의 인적 구성

창립멤버 인사는 와가츠마 법학부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교수급 연구자들을, 그것도 도쿄대학의 교수급 연구자들을 한꺼번에 모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총력전에 협력하거나 동원되었던 대학교수들이 쫓겨난 전후의 대학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했다. 따라서 기존의 대학에서 유력한 연구자를 빼온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19] 그런 상황에서 조선과 중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했다가 패전 이후 일본으로 돌아와 있던 연구자들이 영입대상 1호로 주목되었다. 패전 시에 경성제대에 재직하고 있던 우카이 노부시게(鵜飼信成), 아리이즈미 도루(有泉亨), 하야시 시게루(林茂), 북경대학에 재직하고 있던 다카하시 유지(高橋勇治) 등이 그들이다. 이어서 외무성 조사국에 재직하던 야마노우치 이치로, 육군경리학교에 재직 중이던 우치다 리키조(内田力蔵), 미치비시경제연구소에 근무하던 우노 고조 등 대학에서 쫓겨나 있던 연구자들이 대학으로 돌아왔다. 야마노우치, 우카이, 아리이즈미 등은 와가즈마 교수의 개인적 인맥과 추천으로 채용된 사람들이었다.[20] 남바라의 삼고초려을 받아들여 경제학부 출신의 야나이하라가 초대 소장으로 취임한 이후로는 경제학자들이

18) 南原繁(1947)「社会科学研究所の設置について」『社会科学研究』創刊号 ;『社会科学研究所の30年』, pp.33-35, p.44.
19)『社会科学研究所の30年』, p.46.
20)『社会科学研究所の30年』, p.3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영입되기 시작했다. 우노 고조에 이어서 일본농업연구소의 오우치 츠토무(大内力), 도쿄시바우라전기회사(현재의 도시바)의 스즈키 코이치로(鈴木鴻一郎), 종전시 육군 주계소위였던 엔도 쇼키치(遠藤湘吉), 마에다 문부상의 비서로 문부성에 재직하던 가지 신조(嘉治真三) 등 경제학 연구자들이 연구소 전임 연구원으로 결정되었다. 여기에 더해 겸임교수로 법학부에서 스에노부 산지(末延三次), 노다 요시유키(野田良之), 경제학부에서 오코우치 가즈오(大河内一男), 오츠카 히사오(大塚久雄), 야나이 가츠미(楊井克巳) 등이 참가하여 초기 연구진이 구성되었다. 10명의 전임교수 가운데 법학부 출신이 5명, 경제학부 출신이 4명, 사학과 출신의 경제사 전공자가 1명으로, 초기 사회과학연구소는 도쿄대학 법학부와 경제학부의 연합군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창설시 미국, 영국, 공법, 정치, 경제 등 5개의 연구부문으로 구성되었던 조직은 1949년부터 연구부문 증설이 시작되어 1951년 일단 초기의 진용을 완성하게 되었다. 1949년에는, '소비에트연방 및 동구' 부문과 '일본재정 및 금융' 부문이 증설되었고, 1950년에 '일본 사회조사' 부문이 증설되었으며, 1951년에는 '중국 및 조선', '프랑스 및 서구 남구 ', '일본 사법' 등 세 부문이 증설되었다. 이로서 합계 11개 부문(공법, 사법, 정치, 산업경제, 재정 및 금융, 사회조사, 미국, 영국, 소련 및 동구, 프랑스 및 서구 남구, 중국 및 조선)이 되었고, 1964년에 확충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체제가 유지되었다.[21] 이러한 연구조직의 구성에서 보면 사회과학연구소는 '법학, 정치학, 경제학의 전공별로 진행되는 일본학연구소'에 '전공횡단의 해외지역학연구소'를 덧붙인 모습으로 출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데, 비교연구와 종합연구의 수행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고자 한 이러한 조직 구성이 뒤에 국제문제연구소 설치안의 부상에 따른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본고가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1960년대 초반까지 교수진의 진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21) 東京大学百年史編纂委員会編(1987) p.1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설립초기 교수진 리스트, 채용순으로 정리〉[22]

이름	출생/사망년 (패전시 나이)	임용/퇴임년	전공	임용전/퇴임후 주요 경력	비고
야마노우치 이치로 山之内一郎	1896-1959(49)	1946-1956	소련법	규슈제대/ 외무성조사국(전) 구마모토대(후)	4대 소장 (1953-1955)
우카이 노부시게 鵜飼信成	1906-1987(39)	1946-1961	일본헌법 행정법	경성제대(전), 국제기독교대학 학장(후)	3대 소장 (1952-1953, 사임)
아리이즈미 도루 有泉亨	1906-1999(39)	1946-1967	노동법	경성제대/호세대(전)	5대 소장 (1955-1957) 8대 소장 (1964-1966)
다카하시 유지 高橋勇治	1909-1992(36)	1946-1969	중국 근현대사	동방문화학원/ 호세대학/베이징대학	
하야시 시게루 林茂	1912-1987(33)	1946-1973	일본정치사	경성제대(전), 가나가와대학(후)	
우치다 리키조 内田力蔵	1909-(36)	1946-1969	영미법	호세대/ 육군경리학교(전)	6대 소장 (1957-1960)
우노 고조 宇野弘蔵	1897-1977(48)	1947-1958	경제이론	도호쿠대학/미츠비시 경제연구소(전), 호세대학(후)	2대 소장 (1949-1951, 사임)
스즈키 고이치로 鈴木鴻一郎	1910-1983(35)	1947-1954	경제이론	도쿄시바우라 전기회사(전), 가나자와대학/ 데쿄대학(후)	전출(도쿄대 경제학부), 우노학파
오우치 츠토무 大内力	1918-2009(27)	1947-1957	농업경제학	일본농업연구소(전)	전출(도쿄대 경제학부), 우노학파
엔도 쇼키치 遠藤湘吉	1916-1975(29)	1947-1963	재정학	도쿄대 경제학부(후)	전출(도쿄대 경제학부), 우노학파
가지 신조 嘉治真三	1905-?(40)	1947-1966	경제지리학	문부성/오사카상대/ 아베 요시시게 문부상 비서(전)	
후지이 히로시 藤井洋	?-1951(-)	1947-1951		미츠비시경제연구소 (전)	1951년 2월 사망
다카하시 고하치로 高橋幸八郎	1912-1982(33)	1947-1973	프랑스 경제사	농업종합연구소/ 경성제대(전)	7대 소장 (1960-1964)

22) 『社会科学研究』 사회과학연구소 설립 50주년 기념호 연표에서 정리함. 「社会科学研究所の50年」 『社会科学研究』(1997) 48巻4号.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와세다대학(후)	9대 소장 (1966-1968)
후지타 와카오 藤田若雄	1912-1977(33)	1949-1973	노동법	세이난가쿠인 전문학교(전), 국제기독교대학(후)	
우지하라 쇼지로 氏原正次郎	1920-1987(25)	1949-1981	경제학 /사회조사	도쿄대학 경제학부 조수(전)	
가토 도시히코 加藤俊彦	1916-2005(29)	1949-1977		도쿄고등사범학교(전)	
이소다 스스무 磯田進	1915-2002(30)	1949-1975	법사회학	동아연구소/ 법무청사무관(전) 니혼대학(후)	
우다카 모토스케 宇高基輔	1911-1994(34)	1950-1973	소련・동구 경제	오카야마대학(전), 우노학파	
우시오미 도시타카 潮見俊隆	1922-1996(23)	1950-1977	법학 /법사회학		川島武宜 제미(ゼミ) 출신
다카야나기 싱이치 高柳信一	1921-2004(24)	1952-1982	헌법 /행정법	센슈대학(후)	宮沢俊義 제미(ゼミ) 출신
이시다 다케시 石田雄	1923--(22)	1952-1984	일본정치		丸山真男 제미(ゼミ) 출신
후루시마 가즈오 古島和雄	1922-2004(23)	1954-1982	중국 근현대사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전)	
스즈키 게스케 鈴木圭介	1912-?(33)	1954-1973	미국경제사	릿교대학(전)	
와타나베 요조 渡辺洋三	1921-2006(24)	1958-1982	프랑스민법		川島武宜 제미(ゼミ) 출신
후지타 이사무 藤田勇	1925-(20)	1958-1986	소련법	가나가와대학(후)	함경북도 출생
아라키 모리아키 安良城盛昭	1927-1993(18)	1960-1973	일본 근세경제	오키나와대학(후)	
도하라 시로 戸原四郎	1930-2004(15)	1961-?	독일경제		
이데 요시노리 井出嘉憲	1931-(14)	1961-1992	미국 행정학		

이상은 사회과학연구소가 발간해 내는 최초의 공동작업『사회과학의 기본문제』에 참여한 교수들 가운데 막내 연구자인 이데 요시노리가 채용되는 시기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지의 진용이다. 1946년에 6명, 47년에 7명, 49년에 4명 등이 최초의 본격적 충원으로 임용된 이후, 50년부터 61년까지 매년 1명꼴로 채용되어 모두 28명이 채용되었으며, 그 사이에 사망, 퇴임, 전출 등의 이유로 5명이 줄어, 사회과학연구소 창립 15주년인 1961년에는 23명이 연구소 전임교수로 소속되어 있었다. 초기의 진용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와다 하루키가 지적하듯 경성제대 출신 연구자의 영향력이 작지 않았다는 점과 경제학 연구자 가운데 이른바 '우노학파' 연구자가 대거 모여들었다는 점, 그리고 1950년 이후 대학에 입학해서 '전후 사회과학'의 최초의 세례를 받은 연구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주목할 것은 경성제대 출신 연구자들이 46년 임용자 가운데 3명, 47년 임용자 가운데 1명이 채용되어 수적으로도 적지 않았던 데 더해, 이들 가운데 3명이 5대에 걸쳐 소장을 역임하면서 초기 사회과학연구소의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최초의 기념비적 공동연구 성과인『사회과학의 기본문제』가 출판되는 것도 경성제대 출신인 다카하시 고하치로가 7대 소장으로 있던 시기였다. 경성제대 출신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시민권을 얻고 있었을 뿐 더러 권위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다 하루키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자들에게 식민지에 대한 인식이 옅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초기 진용에서 '우노학파'가 가지는 특별한 위상이다. 47년에 임용된 7명의 연구자 가운데 우노 자신을 포함해서 '우노학파'로 불리는 경제학 연구자는 4명에 이른다. 46년에 임용된 연구자들이 대부분 법학, 정치학 연구자였던 데 비해 47년에 임용된 7명은 모두 경제학 연구자였다. 그 가운데 활동이 빈약했던 가지 신조와 후지이 히로시, 그리고 경제사가인 다카하시 고하치로를 제외하고 경제분석과 경제이론에서 4명이 우노학파 연구자들로 채워졌던 것이다. 경제부문에서 노농파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노학파가 중심이 되었던 것은 전전의 강좌파 연구자들 대부분이 구속과 징역 등의 이력이 있어서 채용조건에 맞지 않았던 것이 이유가 되었을 수 있다.[23] 이 가운데 3명은 도쿄대 경제학부로 전출되고 우노 스스로도 58년에 퇴임함으로써 50년대 후반

23) 福島新吾, 前掲論文, p.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후 그 영향력은 퇴조하게 되지만, '우노학파'가 초기 사회과학연구소에 미친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실천'을 배제한 마르크시즘이 대학연구소에 자리 잡고, 이어서 이들이 경제학부로 전출함에 따라, 마르크스 경제학이 대학내에서 제도화하는 데 사회과학연구소가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마르크시즘의 체제내화'라고도 할 만한 일이었다.

셋째로 지적되어야 할 내용은 전후 세대의 등장이다. 1950년에 채용된 우시오미 도시타카는 가와시마 세미나(川島ゼミ) 출신이다.[24] 그 뒤로 미야자와 도시요시(宮沢俊義), 마루야마 마사오 등의 세미나 수업에 참가했던 연구자들, 이른바 '전후 계몽 세대'의 주력부대라고 부를 만한 연구자들이 채용되기 시작했다. 다카야나기 신이치, 이시다 다케시, 와타나베 요조 등이 이에 해당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학도출진을 마치고 대학에 돌아와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자로서의 자의식을 갖게 될 때에는 이미 도쿄대학에는 사회과학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었다. 이에 더해 아라키, 도하라, 이데 등 3명은 전후에 대학에 진학한 세대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과학연구소의 존재를 도쿄대학과 불가분의 일 부분으로 당연시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전후 사회과학'의 담당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하라, 이데 등이 채용되는 1961년에는 이미 야마노우치, 우카이, 우노, 등 거물 1세대가 은퇴하여 연구소 안에서 한 차례 세대교체가 일어난 상태였다. 이데가 30세의 나이에 연구소에 채용된 1961년, 연구소내 최연장자 그룹은 가지(56세), 아리이즈미(55세) 등이었다.

2.3. 전후 사회과학자들의 청춘 군상

다음은 사회과학연구소에 모인 연구자들의 개인적 면모를 통해 사회과학연구소의 집단지성으로서의 특징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마츠모토 레이지(松本礼二)와 우치다 요시히코(内田義彦)의 일본 지식인 세대구분론을 사회과학연구소

24) 일본의 대학수업은 강의형식으로 진행되는 강의수업과 세미나형식으로 진행되는 연습수업이 있으며, 연습수업을 독일어식 일본어인 제미나르(ゼミナール) 혹은 이를 줄여 제미(ゼミ)라 부른다. 연습수업은 교양과정을 마치고 전공과정에 진학한 학부생부터 참가할 수 있으며, 대학원생이 되면 지도교수의 연습수업이 연구와 생활의 중심이 된다. 같은 연습수업에서 수학한 동학(同学) 그룹을 그 지도교수의 이름을 딴 제미출신자들로 호칭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에 적용해 보면[25], 초기 사회과학연구소는 1920년대를 풍미한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의 영향 속에서 지적훈련을 시작한 '마르크스주의의 세대'이자 '사회청년'들인 야마노우치와 우노를 정점으로 하고, 전시의 정치적 질식상태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전후에 비로소 연구자로서 활동을 개시한 '전후계몽의 세대'이자 '시민사회청년'들이 주력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력 속에서 성장했으면서도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억압을 의식하며 연구활동을 해야했던 중간세대인 가지, 우카이, 아리이즈미 등이 가교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우치다가 전후 사회과학을 '시민사회청년형 아카데미즘'이라 명명한 것은 전후 일본 학계의 세대구성을 고려한 것이었는데[26], 사회과학연구소의 구성은 이러한 사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연장자급 사회과학자들의 경우 공산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와의 친화성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야마노우치와 다카하시 유지의 경우 사회적 정치적 실천의 지침으로서, 우노 등의 경우에는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가 갖는 우월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은 마르크스주의만이 아니었다. 기독교적 소명의식,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의 자유주의 등이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아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는 배태가 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연구소의 최연장자인 야마노우치는 중학시절 교사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사회적 정의와 인류애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는 1917년에 도쿄제대 법과대학 정치과에 입학한 뒤, 강의보다는 도서관에서의 독서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대학의 강의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강의에 관심을 가졌었고, 좌익 학생운동서클인 '신진카이(新人

25) 마츠모토는 일본의 지식인을 '다이쇼 교양주의/올드 리버럴 세대', '맑스주의 세대', '전후 계몽의 세대' 등 세 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우치다는 '메이지기 정치청년', '메이지/다이쇼기 문학청년', '다이쇼/쇼와기 사회청년', '쇼와기 시민사회청년' 등의 네 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松本礼二(1997)「知識人の時代と日本」『思想』872号 ; 内田義彦(1959)「知識青年の諸類型」『近代日本思想史講座4, 知識人の生成と役割』筑摩書房.

26) 高城和義(2007)「戦後日本の社会科学とパーソンズ研究―パーソンズ研究の今日的課題」『帝京社会学』第20号, p.10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会)'에도 기웃거리며 학부 생활을 보냈다. 야마노우치는 도쿄대학 법학부 조교로 연구자의 길에 들어서면서 소련 헌법과 소비에트 법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소비에트 법을 전공하게 된 것은 '학생시절에 만들어진 세계관과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국내정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라고 회고하고 있다.[27] 강좌파 공산주의 이론가로 활약했던 야마노우치에게서 기독교와 자유주의의 강렬한 영향이 보인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우노의 회고도 중학시절부터 시작된다. 그는 중학교 상급생 시절부터 민본주의자 가야하라 가잔(茅原華山)[28]의 논설을 애독했고, 그로부터 '사회주의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회고했다. 동시에 중학 시절에는 『신사회』에 연재되던 카우츠키의 「자본론 해설」을 읽고 사회주의 경제학에 처음 접했다. 그러나 대학 재학 시에 접한 러시아혁명으로부터는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회고하고 있다.[29] 그가 정작 『자본론』을 정독하게 되는 것은 대학 졸업 후였는데, 독일에 유학해서 독일어판으로 처음으로 읽었다고 한다. 그가 노농파 이론가로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독일 유학에서 돌아와 도호쿠제국대학 법학부에 취직해 있을 때 '인민전선사건'[30]에 연루되어 구속되면서였다. 무죄로 석방되었으나 대학을 사직하고, 도쿄에 돌아와서 무역연구소, 미츠비시경제연구소 등에서 연구 조사활동을 하던 중 패전을 맞이했다.

마르크스 경제지리학자 가지 신조도 대학 재학 시에 비로소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오사카상대에 재직할 때 지정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하우스호퍼 등 독일 지정학자의 저술들을 읽기도 했지만, 비트포겔의 「마르크시즘의 깃발 아래」를 읽고 지정학과 결별했다고 한다. 비트포겔은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지정학자들의 소박한 유물론과 그에 기초한 정책론을 비판하고 있는

27) 「回顧と展望・日本におけるソヴェト法研究」『社会科学研究』 7巻2/3/4号合併号, 1955. p.193.
28) 가야하라 가잔(1870-1952)은 민본주의 개념을 일본에서 처음 제창한 인물로 일컬어지며, 다이쇼 데모크라시 초기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저널리스트이다. 1904년 『만조보(万朝報)』에 입사, 1905년부터 해외 통신원으로 구미에 파견되었다. 1910년에 귀국한 뒤 『만조보』에서 언론활동을 재개하고, 국내적으로는 민본주의를, 대외정책에서는 식민지포기와 소일본주의를 주장했다.
29) 「経済学40年(宇野弘蔵教授還暦記念座談会)」『社会科学研究』 9巻4/5号合併号, 1958, p.176.
30) 1937년 코민테른으로부터 반파시즘 통일전선을 구축하라는 지시를 받고 일본에서 인민전선 결성을 기도했다고 하여 노농계파의 대학교수와 학자 그룹이 일거에 검거된 사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데, 비트포겔을 읽고 지정학이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정책학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정학을 그만두었다는 것이다. 만일 계속했더라면 전후 공직에서 추방된 많은 지정학자들과 같은 운명을 걸었을 것이라고 회고하고 있는데[31], 이러한 대목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신뢰가 보인다.

아리이즈미는 도쿄제대 재학 시에 만주사변을 겪은 세대에 속한다. 졸업 이후에는 만주사변 직후의 불경기하에서 취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동료들은 만주로 떠나기도 했는데, '사상적인 망설임'이 있어서 만주에 가지도 못하고 대기업에 취직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를 지망하며 대학원에 진학했고, 조수 임기 만료와 함께 경성제대에 부임했다가 패전과 함께 귀국해서 사회과학연구소에 부임했다. '사상적인 망설임'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가지와 아리이즈미에게 마르크스주의는 비록 적극적인 저항은 아닐지라도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침략에 거리를 두고 총력전 체제를 견디게 하는 사상적 지침이 되었던 것 같다.

한편 그들보다 한 세대 아래라고 할 수 있는 우다카 모토스케 이후의 연구자들은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본격적인 마르크시즘에 접하고 있다. 윗세대가 자유주의, 민본주의, 기독교 등을 사상적 배경으로 선택적으로 마르크시즘을 받아들인 데 비해, 이후의 세대들은 일찍부터 마르크시즘의 영향력 속에 노출되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우노학파의 일원인 우다카 모토스케는 교토 제3고등학교에서 마르크시즘에 접했다.[32] 교토는 교토대학과 제3고등학교(구 학제)를 중심으로 학생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 가운데 하나였다. 우다카는 1933년 도쿄제국대학 경제학부에 입학한 뒤, 학부 3년 동안 『자본론』을 강독했고, 대학원에서 경제학사 연구와 무역조사 등에 전념했으며, 1939년 6월 동아연구소에 입사한 뒤 소련 연구를 시작했다. 우다카는 여기에서 코민테른 관련 문서를 독파, 코민테른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했다.[33] 프랑스경제사가인 다카하시 고하치로도 고등학교에서 이미 『독일 이데올로기』와 부하린의 『사적유물론』을 읽었다. 이러한 독서의 영향으로

31) 「アメリカ研究と私」『社会科学研究』16巻4/5号合併号 1965, p.199.
32) 「宇高基輔教授と経済学」『社会科学研究』23巻4号 1972, pp.185-186.
33) 上掲論文, pp.189-19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학은 사학과를 선택했는데, 외교사에 흥미를 느꼈으나 역사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경제사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한다.[34] 법사회학자 이소다 스스무도 마르크스주의의 세례를 받았던 고교시절을 회고하고 있다. 고교시절 이소다는 전후 일본공산당의 주요 간부로 성장하는 이토 리츠(伊藤律)와 동창생이었다고 한다. 그와 함께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했던 시기를 회고하며 '우리들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고 정리했다.[35] 마르크스주의를 접하는 것은 이소다와 같은 세대의 청년들에게 특별한 노력이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초기 사회과학연구소에 모인 사회과학자들은, 마르크스주의의 흡인력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전투적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이었다기보다는 기독교적 소명의식, 자유주의, 인문주의적 교양주의 등의 입장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였거나 모태신앙처럼 마르크스주의의 세례 속에서 성장한 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실용주의적 사회과학의 창출을 기치로 출범하여, 그로부터 존재 이유를 부여받은 사회과학연구소에는, 시대적 여건이라는 객관적 조건과 시대적 소명 의식이라는 주관적 조건이 맞물리면서 전전 총력전 체제의 여집합에 속해 있으면서 마르크스주의에 관대한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모여들어 있었다. 이점에서 초기 사회과학연구소는 마르크스주의와 실용주의의 위태로운 공존 또는 혼재를 하나의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사회과학연구소의 '사회과학'

3.1.「사회과학에 대하여」

설립 전에 문부성에 제출한「사회과학에 대하여(社会科学について)」라는 제목의 설명서에는 문화과학 내지는 인문과학이 정신과학과 사회과학으로 구성된

34)「経済史研究とその国際交流―社会科学研究所25年間の回顧とともに」『社会科学研究』24巻2号 1972, pp.141-143.
35)「研究生活の回顧」『社会科学研究』26巻3/4号合併号 1975, p.31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고 하고, 사회과학을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일군의 과학에 대한 총칭으로 설명하고 있다.[36] 남바라 또한 설립 기념강연의 인사말에서 사회과학연구소가 지향할 목표로 '비교연구, 종합적 연구, 실태에 입각한 연구'를 들고, 사회과학이 어떠한 특정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37] 야나이하라 또한 1947년 12월에 간행된 사회과학총서의 후기에서 '일본에서 사회과학이라고 하면 마르크스주의의 대명사로 불리던 시대가 있었으나, 우리는 사회과학이라는 용어를 광의로 쓰고 있는 것이며, 마르크스주의도 사회과학의 하나이긴 하나, 그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여 사회과학과 마르크스주의의 구분을 시도하고 있다.[38] 마르크스주의를 여러 사회과학(Social Sciences)의 한 분과학문으로 간주하고 있는 태도이다. 마르크스주의를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포함시킴으로써, 사회과학과 함께 마르크스주의를 공인받고자 하는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

한편 사회과학연구소의 영문 명칭은 Institute of Social Science였다. 사회과학의 단수 표현이 채택된 것이었다. 단수로서의 사회과학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은 우노였다. 이 영문 표현에서는 여러 학문분야의 총칭으로서의 사회과학이라기보다는 하나로 완결된 구조를 갖는 종합적 학문으로서의 사회과학을 지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법학자 가운데에는 아리이즈미가 단수로서의 사회과학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 우카이는 복수로서의 사회과학을 주장하고 있었다.[39] 우카이는 야나이하라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회과학 분과의 총칭으로서의 사회과학을 주장했던 것이다. 「사회과학에 대하여」에서 복수로서의 사회과학을 지향하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문표기에서는 하나의 완결된 체계로서의 사회과학에 대한 지향이 나타나 있다. 이는 연구소 소원들 사이에서 사회과학에 대한 통일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구소 설립과 동시에 사회과학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통일이 추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사회과학에 대하여」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설립 15주년이 지나도록, 그 문건이 어떠한 맥락에서 누구에 의해 만들어져 어떤 경위

36) 「社会科学について」『社会科学研究』15巻1号 1963.
37) 『社会科学研究所の30年』, pp.44-45.
38) 矢内原忠雄(1947) 「あとがき」『社会科学叢書1』 福島新吾, 前掲論文, p.3에서 재인용.
39) 『社会科学研究所の30年』, p.4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로 문부성에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40] 또한『사회과학연구』 1권 2호에는 우노의 논문「사회과학의 객관성(社会科学の客観性)」[41]이 실렸는데, 야나이하라 소장은 같은 호에 실린 아리이즈미의 논문에 대해 칭찬을 하면서도 우노의 논문을 혹평하고 있다.[42] 이러한 사실에서도 사회과학의 개념에 대한 야나이하라와 우노의 태도차이를 엿볼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려는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심을 품게 된다. 우노의 논문은 베버의 사회과학관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 대단히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구소 내 논쟁의 발판으로 삼을 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 연구자들의 회고에서 판단컨대, 연구소에서 그러한 토론회가 조직된 적은 없었다. 그것이 결국은 초기 사회과학연구소가 '잡동사니(寄せ集め)'적 성격을 탈피하여 통일되고 정리된 조직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43]

사회과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실패한 데에는 우노의 지나친 경제학 우선사상에 법학 정치학 연구자들이 질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당시 조수로 근무하던 후쿠시마 신고의 회고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44] 반면 야마노우치를 중심으로 한 강좌파 연구자들의 공식적 견해 또한 그에 대립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직되어 있었다. 즉 소련공산당의 정통을 계승한 일본공산당의 이론만이 유일하게 진정한 사회과학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우노에 비판적이고 야마노우치에 호의적인 후쿠시마는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후쿠시마는 학도출진의 경험이 있는 자로, 이른바 황국군인이었던 사람이다. 그러던 그가 전후에 공산당에 입당하여 공산주의의 입장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는 자로 변모해 있었다.[45] 그런데 우노는 도나리구미(隣組)에서 군국정신을 발휘하던 이웃이 패전하자마자 하루아침에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예로 들면

40)『社会科学研究所の30年』에 따르면「사회과학에 대하여」는「설치취지문(趣意書)」과 함께 봉해져 있던 문서로, 정부에 제출한 정식서류「社会科学研究所設置事由」에 덧붙인 보완서류였다.『社会科学研究所の30年』, pp.43-44.「社会科学研究所の15年」(『社会科学研究』 15巻1号, 1963)도 참조.

41) 宇野弘蔵(1948)「社会科学の客観性―マクス・ウェーバーの『理想型』について」『社会科学研究』1号.

42)「有泉先生の学問をめぐって」『社会科学研究』18巻1号 1966.

43)『社会科学研究所の30年』, p.48.

44) 福島新吾, 前掲論文, p.10.

45) 上掲論文, p.1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서 공산당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고 있다.[46] 후쿠시마의 활동을 바라보는 우노의 입장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더구나 야마노우치는 전후에 태도를 바꿔, 스탈린에 의해 숙청된 소련법학자 파슈카니스(E. B. Pashukanis)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이는, 우노가 보기에, 스탈린주의에 대한 맹종이었던 것이며 비학문적인 정치적 판단에 따른 학문의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계기로 우노의 강좌파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전에 사회과학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의미하게 된 배경에는 사적 유물론의 영향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국가학으로서의 법학이 가장 먼저 체계를 잡은 뒤, 정치학이 이로부터 분화하고, 다시 사회정책학이 갈려 나왔으며, 사회정책학의 체계화가 경제학의 독립적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47] 따라서 일본의 아카데미즘에서 법학 또는 정치학의 경제학에 대한 우월의식은 전후 직후의 시기에도 남아있을 정도로 뿌리 깊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경제학자들, 특히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의 반발심 또한 강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일본의 사회과학을 전유하게 되는 데에는 이러한 학문 전개의 역사가 하나의 배경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사회과학연구소 내에서 야마노우치와 우노 사이의 갈등에는 강좌파와 노농파의 차이에 더해 도쿄제국대학의 법과대학 정치학과 출신과 경제학과 출신 사이의 경쟁관계도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실제로 정치학과 출신의 조수 후쿠시마 신고는 우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 여러 인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야마노우치에 대해 호의적이다.[48] 이렇듯 연구소 전임교수들의 개인적인 신념과 개성들 또한 연구소의 통일과 조직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공통의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채 사회과학연구소의 사회과학은 성과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구소의 존립의의를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

46) 「経済学40年(宇野弘蔵教授還暦記念座談会)」『社会科学研究』9巻4/5号合併号 1958.
47) 石田雄(1984)『日本の社会科学』東京大学出版会.
48) 福島新吾, 前掲論文.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3.2. 사회과학연구소의 지향: 비교와 종합, 실태조사

'사회과학'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미흡한 가운데 사회과학연구소의 존재의의는 연구 방법론의 확립에서 추구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교연구와 종합연구, 실태조사는 사회과학연구소 설립의 근거였으며 존재이유였다. 그런데 연구소 소원들이 이를 자각하고 전 연구소 차원의 공동연구를 조직하는 움직임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일어났다. 법학 정치학 경제학 등의 연구자가 '잡동사니'처럼 모여 있기만 한 연구소가 존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내각 법제국이 의구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패전과 새로운 국가건설에 즈음해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면 학부에 강좌를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자료의 망라와 계통적 수립이라는 목표와 관련해서도 이를 위해 굳이 연구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되었다. 이에 따라 자료의 망라와 계통적 수집을 기초로 하고, 이를 활용하면서도 '통제'된 체제를 갖춘 연구로서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49]

전 연구소 차원에서 최초의 공동연구는 '민주주의연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개시되었다. 1947년 2월 구성되었으며, 야나이하라 소장이 위원장, 우노가 부위원장, 우치다가 간사를 맡았다. 위원회 설치의 취지는 '일본의 재건을 위해 민주주의 사상과 제도의 연구는 불가결한 중요성을 지니는데, 특히 일본의 민주주의 발전과정 및 그 현재 양상의 특수성을 증명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종합적이면서도 비교적으로 수행되어야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테마 별로 네 개의 부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주제와 연구 책임자 및 팀구성은 다음과 같다.[50]

1부. 민주주의의 사상과 제도: 각국의 비교연구(주임, 야마노우치 이치로)
2부, 일본의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주임, 우노 고조)
3부, 전환기 행정기구의 민주주의화 문제, 특히 각종 위원회에 관한 실태조사(주임, 우카이 노부시게)
4부, 노동조합운동과 민주주의, 특히 최근의 노동쟁의에 나타나는 민주주의화

49) 『社会科学研究所の30年』, p.35, p.113.
50) 東京大学百年史編纂委員会編, 前掲書, pp.16-1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경향에 관한 실태조사(주임, 오고우치 가즈오)

1부는 비교연구, 2부는 종합연구, 3부와 4부는 실태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소가 지향하는 3개의 기둥이 반영되어 있었으며, 기획부터 구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통제된 형태의 연구였다. 그러나 그 성과는 미미한 것이었다. 본격적인 연구성과물이 제출되어야 할 것은 1, 2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저술 성과를 낸 것은 제3부회 및 제4부회였다. 제3부회와 제4부회는 연구계획서 상에 '다수의 조수 및 연구생을 동원하여 (중략) 실태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명기되어 있던 바, 제4부회의 작업이 먼저 1950년 3월 사회과학연구소편『전후 노동조합의 실태(戦後労働組合の実態)』라는 형태로 일본평론사에서 출판되었으며, 제3부회의 작업이 1951년 5월에『행정위원회(行政委員会)』라는 제목으로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1부와 2부는 연구미진으로 출판되지 못했다. 연구의 기획과 자료의 조사 및 수집, 그리고 분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공동연구로 오해했던 데 그 원인이 있었다.[51]

최초로 시도된 공동연구의 실패가 위기를 불렀다. 행정관리청 감찰부가 사회과학연구소의 해체를 권고한 것이다. 행정관리청 감찰부가 작성한『부속기관 감찰결과(제2편)』(1952년 2월)에 따르면 사회과학연구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사회과학연구소는 사회과학에 관한 종합연구기관으로, 법학 문학 경제학 각학부에 걸친 문제의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상을 분석해 보면, 각 연구항목은 이를 각 학부에 분할하더라도 충분히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본연구소는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52]

사회과학연구소는 이에 반론을 전개했다. 행정감찰의 본질과 한계를 지적한 뒤, 연구소 일반에 대해 대학의 자치라는 원칙에서 논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지였다. 그러나 연구소의 현상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동연구의 1, 2부는 여전히 미완인 상황이었다.[53]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커뮤니티의 연구'가 조직되었다. '일본사회의 기초를

51)『社会科学研究所の30年』, p.40.
52) 東京大学百年史編纂委員会編, 前掲書, p.29에서 재인용.
53) 東京大学百年史編纂委員会編, 前掲書, p.3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루는 커뮤니티의 종합적 사회실태 조사'가 1952년 여름에 개시되었다. 연구 대상은 군마현 닛타군 고도무라(群馬県新田郡強戸村)로, 필드워크는 1952년 여름 10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자 22명, 학생 9명, 사무직원 4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한(ミゼラブル) 것'이었다. 조사연구의 문제의식과 방법이 서로 달랐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공동연구에서 비교연구와 종합연구가 실패한 데 이어 조사와 실증적 자료수집이라는 면에서도 연구소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결과였다. 이후 공동연구는 소그룹연구 중심으로 이동했다.[54]

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부진으로 그 존재의의가 의심을 사는 가운데, 1958년에는 도쿄대학 내에 국제문제연구소 구상이 부상했다. 사회과학연구소는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서서 위기에 대응해야 했다. 국제문제연구소 구상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즉 그것은 1950년부터 도쿄대학과 스탠포드대학이 록펠러재단의 원조로 실시해 온 미국연구세미나가 발단이 된 것이었으며, 이는 일본에서 자유주의적 지식인을 육성하려는 미국의 해외 학술정책의 일환이기도 했다.[55] 도쿄대학 내에서 미국연구세미나는 남바라와 야나이하라 등의 지원을 얻어 실시되고 있었으며 사회과학연구소의 가지, 우카이 등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56] 세미나는 1956년도에 종료되었지만 1957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미국연구센터가 설립되어 후속 연구를 추진해 왔는데, 미국연구센터 내부에서 미국 이외의 세계적 지역연구기관 설치 움직임이 나왔던 것이다. 56년 당시 총장이던 야나이하라도 이에 긍정적인 의견이었다고 한다. 야나이하라는 사회과학연구소를 해체하여 외국연구 부문은 국제연구소가 흡수하고 현재의 사회과학연구소는 일본연구소로 개편한다는 구상을 피력했다.

사실 이 문제의 기원은 우노 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노 소장 시기에 연구소내 일본연구 부문과 외국연구 부문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쟁이 일었던 것이다. 우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과학 단수설'에 입각해서 조직으로서의 통일된 연구를 지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문제에

54) 東京大学百年史編纂委員会編, 前掲書, pp.34-38,『社会科学研究所の30年』, p.54.
55) 辛島理人(2012)「戦後日本の社会科学とアメリカのフィランソロピー」『日本研究』45号, pp.164-165.
56)『社会科学研究所の30年』, p.55, p.5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해 완전히 합의를 보지는 못한 채, 우노의 비판적 명명에 따르자면 '성운(星雲)'-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대체하면 일종의 클러스터-과 같은 모습으로 성격이 다른 연구들을 병행한다는 데에서 봉합이 이루어졌던 것이다.[57]

이에 더해 연구소의 초대 소장이었던 야나이하라는 도교대학 교양학부의 국제관계론 계열을 사회과학연구소와 통합하는 구상도 갖고 있었다. 또한 사회과학연구소의 지역연구는 '전혀 지역연구적이지 못하며 수준이 낮다'는 비판이 일고 있었다.[58] 아마도 비판의 진원지는 교양학부였으며, 미국식 지역연구(area studies)의 최신 경향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사회과학연구소는 일본연구소로 개편하여 일본연구를 학제적으로 수행하고, 국제문제연구소를 따로 설립해서 해외 지역연구를 추진한다는 구상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지역연구(area studies)의 방법론으로 일본을 제외한 세계 각 지역의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종합적, 비교적 연구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국제문제연구소의 영문명칭이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Affairs) and Area Studies였던 데에서 그러한 구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59] 이러한 구상은 아시아를 연구대상으로 하던 동양문화연구소 및 기타 해외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조직해 온 사회과학연구소와 연구대상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60]

1960년 6월 평의회에서 채택된 국제문제연구소 설치 구상은 '미주, 유럽, 소련지역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지역연구를 중심으로 한 동양문화연구소, 일본연구를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연구소'의 세 연구소 정립 방안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문부성이 난색을 표명함으로써 이 안은 폐기되었다. 국제문제연구소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회과학연구소의 확충으로 해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61]

1963년 12월 경제학부 교수이자 사회과학연구소 겸임교수였던 오코우치 가

57) 『社会科学研究所の30年』, p.41.
58) 『社会科学研究所の30年』, pp.55-56.
59) 『社会科学研究所の30年』, p.42, p.58.
60) 東京大学百年史編纂委員会編, 前掲書, pp.46-48.
61) 『社会科学研究所の30年』, pp.56-5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즈오가 새로운 총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국제문제연구소 설치안은 오히려 사회과학연구소가 확충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전화위복이 되었다. 1964년 3월에는 '사회과학연구소 개조확충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67년에는 '확충개조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그 안에 '사회과학적 지역연구 체제를 급속히 본격적으로 확충 정비'한다는 방침이 확인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62] 국제문제연구소 구상에 대한 자기방어를 통해 사회과학연구소는 '지역연구소'로서의 색채를 강렬히 지향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사회과학연구소는 기사회생했다. 오히려 기구는 확충되었다. 그 배경에는 전 연구소적 차원에서 조직했던 공동연구 『사회과학의 기본문제』가 출판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63]

3.3. 『사회과학의 기본문제』의 사회과학

『사회과학의 기본문제(이하 기본문제)』는 국제문제연구소 구상에 대한 사회과학연구소의 생존을 위한 '방위'로서 제출된 성과였다.[64] 상권은 제1편 농업/토지소유의 제 문제, 제2편 독점자본을 둘러싼 제 문제, 제3편 노사관계의 제 문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하권은 제4편 시민사회와 사법의 제 문제, 제5편 국가와 공법의 제 문제 등으로 구성되었다.[65]

때마침 개소 15주년을 맞이하여 구상된 이 논문집은 그 완성을 위해 창립기념식을 1년 연장할 정도로 방대한 작업이었다. 상하 2권의 집필에 참가한 인원은 모두 50명, 이미 타 연구기관으로 전출한 전직 조수 조교수 등을 포함하여 모든 연구소 소원이 참가한 것이었다.[66] 상권 860쪽, 하권 743쪽의 분량이었으며, 고급스러운 헝겊이 씌워진 양장판으로 출판되었다.

그 서문에서 당시의 소장 다카하시 고하치로는 1947년 연구소 개소 기념강연회에서 남바라가 행산 인사말 중에서 연구소 개설의 세 가지 목적에 대해 다시

62) 東京大学百年史編纂委員会編, 前掲書, pp.49-50.
63) 『社会科学研究所の30年』, p.57.
64) 上掲書, p.57.
65) 東京大学百年史編纂委員会編, 前掲書, pp.52-53.
66) 야마노우치와 우노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야마노우치는 1959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만, 우노가 빠진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며 부자연스럽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확인하고 있다. 비교연구, 종합적 연구, 이론과 실제의 결합 등이 그것인데, 『기본문제』는 이러한 목적을 자각한 가운데 이를 위한 노력을 가시화함으로써 연구소를 둘러싼 내외의 도전에 답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 한편 '사회과학은 그 본질상 비판적이다'는 문장이 서언 말미에 돌발적인 형태로 삽입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어지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그 과제가 얼마나 곤란한 것이라 해도, 우리는 (중략) 언제나 진리에 충실하여 어떠한 준험한 학문의 길이라 해도 나아갈 각오이다.' 국제문제연구소 구상 등 학내외의 사회과학연구소 흔들기가 가치중립을 표방하는 몰비판적 미국적 실용연구를 의식해서 나오고 있다는 데 대한 비판과 자기 방어로 읽힌다.[67]

『기본문제』 상하권의 구성은 사적 유물론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상권의 1편은 농업/토지소유, 2편은 독점자본, 3편은 노사관계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른바 토대=하부구조 분석이다. 2권에 포함된 4편은 시민사회와 사법, 그리고 5편이 국가와 공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2권은 상부구조 분석인 바, 그 가운데서도 재산법, 법인, 입회권, 재산상속의 문제 등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 분석이 먼저 이루어진 뒤 국가 부문 분석이 가장 마지막에 배치된 데 사회과학연구소가 추구하는 사회과학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각 편은 이론 검토보다는 개별 지역에서의 단계론(즉 역사분석)과 현상분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농업/토지소유를 주제로 7편의 논문이 포함된 제1편에서는 다카하시 고하치로의 논문 「비교토지제도논고: 공동체규범의 해체와의 관련속에서(比較土地制度論考—共同体規範の解体との関連における)」가 그나마 이론 검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에서 나타나는 토지소유제도의 역사적 형태들에 대한 분석이다. 제2편에서는 10편의 논문 가운데 엔도 쇼키치(遠藤湘吉)의 논문 「금융자본론의 방법에 관한 일 고찰(金融資本論の方法にかんする一考察)」, 오우치 츠토무(大内力)의 논문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노트(国家独占資本主義論ノート)」가 이론 검토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등에서의 사례연구들이었다. 제3편의 10편의 논문은 모두 일본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노동법 등에

67) 高橋幸八郎(1963)「序」『社会科学の基本問題』上巻, p.iv.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한 분석들로서, 실증 조사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 하권의 제4편에서는 이론 검토에 해당하는 논문이 4편이고 나머지 7편의 논문이 영국, 프랑스, 소련, 동구, 일본 등의 사례분석이다. 제5편은 12편의 논문 가운데 10편의 논문이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의 행정 및 정치사 분석이고, 마지막에 이론검토에 해당하는 2편의 논문이 포함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례분석을 통한 실증 연구가 강한 반면 이론 검토가 빈약하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기본문제』에 수록된 개별 논문들의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읽어낼 수 있다. 우선 외국 사례에 대한 연구의 경우,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구조를 밝혀내고 이에 대비되는 일본의 특징을 추출하려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둘째로 외국의 사례라 해도, 소련과 중국 기타 사회주의권의 사례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는, 일본과의 단순 비교를 조심스럽게 거부하면서 내재적인 이해가 중요하다는 논지가 강조되고 있다. 셋째 일본연구의 경우, 세계사의 전개 속에서 일본의 위치와 역사적 발전단계를 밝히려는 시선이 특징적이다.

먼저 영미와의 대조 속에서 일본의 특징을 밝히려는 시도, 즉 비교의 방법론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연구로 다카하시 고하치로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다카하시는 「비교토지제도논고」에서 토지제도사론을 전개하면서 영국, 프랑스, 프러시아의 사례와 일본을 비교하고 있다. 비교의 결론으로 그는 일본과 프로시아의 경우, 절대주의와의 결합 속에서 자본주의가 구축되어 자유주의 민주주의 성립을 위한 사회적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채 오히려 봉건 과두전제적 구성 속에서 근대국가 형성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 패전 후에 전개된 일련의 변혁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으며, 양국에서 이렇게 구성된 근대국가는 이번 세계대전의 결과 파괴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나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여 암시적인 문장으로 글을 맺고 있는데, 일본의 역사적 발전단계 규명과 전망수립에 기여하는 연구들이 뒤에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68]

기타가와 도쿠스케(喜多川篤典)의 「법인이론의 문제성: 실재설을 비판하는

68) 高橋幸八郎(1963)「比較土地制度論考—共同体規範の解体との関連における」『社会科学の基本問題』上巻, pp.3-3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방법(法人理論の問題性—実在説的考え方を批判する方法)」은 다카하시의 문제의식을 이론적 고찰 속에서 반영하고 있다. 기타가와는 경제적 구조변동과 회사법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미의 경우와 독일 일본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그는 영미에 비해 독일 일본의 경우 자연법적 사회계약설이 확고한 지반을 다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지반 위에서 법인실재설이 횡행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법인실재설이 국가실재설로 이어지고 이는 전체주의를 불러들이는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영미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조합적 법인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와 사회단체를 동렬로 보고 동질적이라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국제주의를 인정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 그 결론이다.[69]

행정수속법을 소재로 한 시모야마 에이지(下山瑛二)의 연구 또한 비슷한 주장을 담고 있다. 그의 논문은 의미상 필요한 개념 용어 이외에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돋보이는 글인데, 논문에서 그는 영국에서는 이미 상식적 개념인 '사권'과 '공익' 등의 용어가 일본에서는 아직 생소하다고 하여 이들에 대한 개념의 검토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도적 과제 및 특징들에 대해 고찰한 뒤, '전형적인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여 근대국가를 형성하고 그 변용의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영국의 행정수속법에 대한 연구가 타국의 사례에 비해 일본의 법적 제 문제를 고찰하는 데 반성적 기능을 갖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70] 행정학에서는 미국의 사례가 비교의 준거가 되었다. 오쿠다이라 야스히로(奥平康弘)와 이데 요시노리(井出嘉憲)는 각각 위헌심사제와 행정이론 그 자체를 사례로 들면서 미국의 법제와 행정이론의 전개에 실천적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71]

둘째로, 같은 외국 사례에 대한 연구이면서도 사회주의권 연구의 경우 섣부른 비교를 조심스럽게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기본문제』에 수록된

69) 喜多川篤典(1963)「法人理論の問題性—実在説的考え方を批判する方法」『社会科学の基本問題』下巻, p.58.
70) 下山瑛二(1963)「イギリス行政手続法の法理」『社会科学の基本問題』下巻, p.422.
71) 奥平康弘(1963)「最近の合衆国最高裁判所をめぐる論議について—現代における基本的人権保障制度の一考察のために」『社会科学の基本問題』下巻, p.423. ; 井出嘉憲(1963)「アメリカにおける行政理論の転換過程—その歴史的展望と現代における基本動向」『社会科学の基本問題』下巻, p.51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부분의 사회주의권 연구들은 소련과 중국 및 기타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현실을 충실히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우다카 모토스케와 와다 하루키의 공저인 「러시아의 국가독점자본주의: 소비에트 사학의 최근 동향에 대해(ロシアにおける国家独占資本主義―ソヴェト史学の最近の動向について)」는 소비에트 역사학계에서 새로운 정설로 제기된 학설, 즉 러시아의 경우 제국주의시대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국가독점적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제도로서의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성립했으며 이것이 10월 혁명으로 이어지는 물질적 기초였다는 정식화에 대해 충실히 소개, 검토하고 있다.[72] 후지타 이사무(藤田勇) 또한 소련에서 혁명 이래 민법전 편찬을 중심으로 민법개념이 파악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다.[73] 우시오미 도시타카(潮見俊隆)는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가족법에 대해서는 일본에 소개된 바가 있는데 반해, 헝가리와 불가리아의 사례에 대해서는 일본에 아직 소개된 바가 없다고 하여 양국의 가족법을 충실히 소개하고 있다.[74]

중국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금욕적 태도는 유지되고 있다. 고지마 가즈오(小島和雄)는 혁명 후 중국에서 시도된 농업협동화의 일반 방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의 총 과정에서 토지소유 문제와 농업발전의 속도, 공업화 병진 정책과의 상관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75] 다카하시 유지(高橋勇治)는 보다 명확히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카하시는 연구의 목적이 '사회주의 중국에서 인민의 자유가 제한되고 노예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밝히고 '한 국가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헌법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사회경제, 계급대립의 구조, 국가권력의 본질과 형태,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중국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76]

---

72) 宇高基助・和田春樹(1963) 「ロシアにおける国家独占資本主義―ソヴェト史学の最近の動向について」『社会科学の基本問題』 上巻, pp.307-346.
73) 藤田勇(1963) 「社会主義と民法―ソ連における民法典論争史をめぐって」『社会科学の基本問題』 下巻, p.119.
74) 潮見俊隆(1963) 「東欧諸国の家族と家族法」『社会科学の基本問題』 下巻, p.321.
75) 小島和雄(1963) 「中国における農民的土地所有の形成とその集団的所有への展開」『社会科学の基本問題』 下巻, pp.207-231.
76) 高橋勇治(1963) 「社会主義国家における人民の基本権―とくに中国を中心にして」『社会科学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셋째로 자국연구 즉 일본연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명시적으로건 암시적으로건 세계사의 일반적 전개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연구자 개개인이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포착된 사례들을 소재로 하여, 일본에서의 학설수용과 발전단계를 확인하고 향후 전망을 세워보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카야나기 싱이치(高柳信一)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그는 「공법과 사법: 우리나라 행정법 제 원리의 비판적 고찰(公法と私法—わが国行政法諸原理の批判的考察)」이라는 논문에서 전후 일본의 행정법 제도들이 커다란 질적 변혁을 경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실정법화한 부분과 법원리 또는 법이론에 의한 해석운용의 불일치 문제에서 아직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법과 사법의 구별 문제를 그 사례로 거론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공법과 사법의 구분의 문제가 근대의 지표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봉건 시대에 토지에 대한 공적 지배권과 사적 지배권이 영주적 지배권으로 일체화되어 있었고, 조세와 지대도 미분화되어 있었던 데 비해 근대국가에 들어서 통치권(또는 조세) 등 공적 지배권(또는 청구권)과 소유권(또는 지대) 등의 사적 지배권(또는 청구권)이 분화했다는 세계사의 일반적 전개법칙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권력행사자와 국민에게 공인(또는 공민)과 사인의 이중성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것이 근대에 들어서서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열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여 일본의 근대적 발전 단계를 확인하기 위한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77] 다카야나기의 문제제기는 전후 일본의 법체계가 메이지 일본에 비해, 그리고 일반이론에 비추어 얼마나 봉건적 성격을 극복하고 근대적 성격을 획득했는가를 가늠하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일본경제사 연구에서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다. 아라키 모리아키(安良城盛昭)의 연구는 지주제 하의 자립적 농민경영 문제를 사례로 일본적 특수성을 밝히려는 시도이며,[78] 가토 도시히코(加藤俊彦),[79] 하야시 다케히사

の基本問題』下巻, p.656.

77) 高柳信一(1963)「公法と私法—わが国行政法諸原理の批判的考察」『社会科学の基本問題』下巻, pp.359-361.

78) 安良城盛昭(1963)「幕末期泉州における小作農の存在形態—自立的小作農民経営形成の困難性とその過渡的性格をめぐって」『社会科学の基本問題』上巻, pp.177-206.

79) 加藤俊彦(1963)「財閥における銀行の役割」『社会科学の基本問題』上巻, pp.391-41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林健久),[80] 시바가키 가즈오(柴垣和夫)[81] 데루오카 슈조(暉峻衆三)[82]등의 연구는 일본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성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사적 접근과 법제사 연구 등도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코우치 가즈오(大河内一男)[83]와 우지하라 쇼지로(氏原正治郎)[84] 등의 연구는 일본적 노사관계의 특수성에 주목한 연구들이다. 특히 우지하라의 연구는 사회과학연구소가 착실히 쌓아올린 자료수집에 입각한 충실한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사회과학연구소가 지향하는 또 다른 목표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아리이즈미의 연구는 고도 소비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민법 연구자의 시선으로 분석한 일본 사회의 현단계 분석이며,[85] 도시다니 노부요시(利谷信義)의 연구는 가족법을 소재로 한 법사회학적 연구로서, 가족법 개정을 통해 보는 전후 일본 사회의 구조 분석이라 할 수 있다.[86]

Ⅳ. 결론

1997년에 발행된『사회과학연구』48권 4호는 사회과학연구소 창립 50주년 기념특집호로 '사회과학의 50년'을 기획했다. 사회과학연구소의 창립 50년에 일본의 '사회과학 50년'을 되돌아보겠다는 의도에 사회과학연구소의 자부심이 묻어난다. 기획특집은 네 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세 가즈토시(加瀬和俊),[87] 스에히로 아키라(末広昭),[88] 히라지마 겐지(平島健司),[89] 모리타 오사무

80) 林健久(1963)「明治前期の株式会社―日本金融資本分析の一前提」『社会科学の基本問題』上巻, pp.421-452.
81) 柴垣和夫(1963)「産業資本段階の日本資本主義と『財閥』―1890年代の紡績業と三井・三菱」『社会科学の基本問題』上巻, pp.453-496
82) 暉峻衆三(1963)「独占段階への移行期における日本の農業問題」『社会科学の基本問題』上巻, pp.497-539
83) 大河内一男(1963)「日本的労使関係の原型―第一次大戦後の『工場委員会』をめぐって」『社会科学の基本問題』上巻, pp.543-556.
84) 氏原正治郎(1963)「日本の労働組合」『社会科学の基本問題』上巻, pp.557-596.
85) 有泉享(1963)「生産物責任論序説」『社会科学の基本問題』下巻, p.59.
86) 利谷信義(1963)「戦後の農家相続論覚書―その展望と問題点」『社会科学の基本問題』下巻, pp.181-223.
87) 加瀬和俊(1997)「日本農業論の戦後50年―大内力の場合」『社会科学研究』48巻4号.
88) 末広昭(1997)「戦後日本のアジア研究―アジア問題調査会, アジア経済研究所, 東南アジア研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森田修)[90] 등 사회과학연구소의 교수들이 각각 일본 농업론의 전후 50년, 전후 일본의 아시아론, 전후의 유럽정치 연구, 전후 민법학에서의 근대 등을 주제로 일본의 사회과학을 회고하고 문제점을 반성하고 있다.

'초기' 사회과학연구소에 주목한 이 글의 본문 내용을, '사회과학의 50년' 기획 논문들의 총괄을 참조하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학연구소의 사회과학은 시대의 변화를 강렬히 의식하면서 전개되었다. 이는 사회과학연구소의 설립 자체가 전후의 시대적 소명을 강력히 의식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평화'와 '민주주의'에 사회과학이 어떻게 복무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사회과학연구소에 모인 연구자들의 연구를 구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때때로 '역사 과잉'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둘째 구미를 강렬히 의식한 유럽연구에 대비해 구미의 기존 이론에 구애받지 않은 소련 동구권 연구와 아시아 지역연구, 특히 중국연구가 대조적으로 비교된다. 이는 사회과학연구소가 소임의 하나로 내걸었던 비교연구의 한계와 유의미성을 동시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과학연구소는 시대적 과제라는 피제약성에 더해 대학연구소로서 존립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밝혀야 하는 존재 구속성을 안고 있었다. 사회과학연구소는 도쿄대학의 부치연구소로서 출범하면서 그 존립의 이유를 개별 학부나 학과의 연구자들이 시도할 수 없는 비교와 종합 연구에서 찾았으며, 공동연구는 그러한 노력의 성과들이었다. 그런데 비교의 대상으로서의 구미 지역연구는 기존 이론이 제시하는 보편적 기준의 발원지이자 그 정당성을 확인하는 시험약과도 같은 것이었던 반면에 소련 동구권 및 중국 등 신흥국 연구는 구미에서 발원한 기존 연구를 적용하는 데 신중했으며, 내재적 이해를 보다 강조하는 것들이었다.

셋째, 위의 두 번째 특징과도 밀접히 관계되는 것으로, 사회과학연구소의 사회과학이 드러낸 한계로서 보편이론화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초기 연구소 충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究センター」『社会科学研究』48巻4号.

89) 平島健司(1997)「戦後におけるヨーロッパ政治研究の展開—民主制と民主化の視角」『社会科学研究』48巻4号, p.75.

90) 森田修(1997)「戦後民法学における『近代』—『近代的土地所有権』論史斜断」『社会科学研究』48巻4号, p.9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즉 '초기' 연구소의 교수 충원과정은 개인적 인맥 중심의 무원칙한 것이었으며, 그 때문에 연구소의 구성은 조화로운 통일이 어려운 개성들의 집합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 조건에서 성과를 산출해서 존립의 근거를 내놓으라는 외부로부터의 요청에 급하게 대응하다보니 이론적인 지향을 착실히 공유해 나가기보다는 비교적 단시간 내에 개별적으로 성과 산출이 가능한 실증연구에 쏠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더구나 보편이론화의 노력 부족은 사회과학연구소에서의 '사회과학'을 둘러싼 논쟁의 부실에서 그 원인이 배태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 때문에 연구소 내부에서 진행된 공동연구, 특히 초기 공동연구에서는 때때로 그것이 여러 가지 맛을 따로따로 즐기는 종합선물세트(寄せ集め)와 같은 성과로 나타나는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과학연구소 창립 50주년에 즈음한 자기반성으로부터 10년이 흐르면서 일본에서 사회과학의 위기는 더욱 현재화했다. 우노 시게키(宇野重規)는 2006년에 『사회과학연구』에 발표한 글[91]에서, 일본의 사회과학이 전성시대를 이미 마감하고 위기 속에서 변신과 생존을 모색하던 상황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 사회과학자로서의 자기반성을 수행하고 있다. 우노 시게키는 전후 일본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사회과학에 관한 공통인식이 존재했으나 조금씩 흔들리다가 90년대에 들어와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우노(시게키)는 이들 일본의 사회과학에 대한 재검토가 일어난 90년대 상황을 93년부터 94년에 걸쳐 간행된 이와나미 강좌 『사회과학의 방법(社会科学の方法)』[92] 시리즈를 소재로 하여 일본의 사회과학의 전개와 한계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독자적 사회과학은 일본자본주의논쟁의 과정에서 탄생했는데,[93] 이는 근대 서구의 산물인 사회과학적 인식의 틀로 일본이라는 새로운 대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였다. 이러한 노력은 성과와 함께 문제점도 노정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연구대상의 존재방식과 관련한 것인데, 즉 외부와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열린 일본'이 아닌, 그 자체로 완결된 구조를 가진 '닫힌 일본'

91) 宇野重規(2006)「1990年代日本の社会科学—自己反省とその継承」『社会科学研究』58巻1号.
92) 山之内靖他編(1993-1994)『岩波講座、社会科学の方法』岩波書店.
93) 杉山光信(1983)『戦後啓蒙と社会科学の思想』新曜社.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그 비교 대상으로 서구에 집착했다는 점이다. 이는 '초기' 사회과학연구소가 설정한 방향성이 이후 계승되었으며, 그것이 현재의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적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각이 '일본의 사회과학'의 재검토를 요구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사회과학 특유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재검토 요구가 분출하는 시기는 사회과학이 전지구적으로 위기에 처해지고 있던 시기였다. 소련의 해체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체제 붕괴, 지구화 경향 속에서 현저해지고 있는 '근대합리적 디자인 국가'인 국민국가의 위기, 민족과 종교 등 비합리적 요인의 표면화 등이 그 배경이었다. '19세기 패러다임'이었던 사회과학은 분석대상의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했던 것이다.[94] 이러한 '사회과학의 세계적 위기' 속에서 일본의 사회과학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히려 구미의 연구자들은 일본의 사회과학이 지녔던 적극적 의의를 현재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코슈만(1993)은 '주체성 논쟁'에 참여했던 지식인을 소재로 전후 일본의 사회과학에서 적극적 유산을 찾으려 했으며[95], 바세이(2004)는 일본의 사회과학적 유산에 숨겨진 가능성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96]

전후 사회과학에 대한,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사회과학에 대한 시니시즘이 팽배한 가운데, 그 적극적 유산과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코슈만과 바세이와 같은 외국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근대서구에 한없이 다가가고자 했던 일본의 사회과학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바세이는 일본의 사회과학을 '보편적인 것을 특수한 것으로 매개하는 과학'이었다고 규정했다. 즉 일본의 외부(즉 근대서구)에 존재하는 보편성을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로 삼아 토착화하려고 했던 행위로서 일본의 사회과학을 이해했다. 그 이면에서 전개된 것은 일본을 특수화하여, 그 특수성을 추궁하고 분석하는 행위였던 바, 그러한 행위는 근대서구가 지니고 있다고 간주되었던

94) 川勝平太(1993)「社会科学の脱領域化」『揺らぎのなかの社会科学』(岩波講座、社会科学の方法1) 岩波書店, p.268 ; 馬場宏二(1993)「社会科学の三つの危機」『揺らぎのなかの社会科学』(岩波講座、社会科学の方法1) 岩波書店, p.159.
95) ヴィクター・D・コシュマン, 前掲書.
96) アンドリュー・E・バーシェイ, 前掲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보편성'에 위협이 되고 있었다는 점을 바세이는 강조하고 있다. 즉 '보편'적 모델로서의 유토피아적 세계 그 자체가, '특수'한 후진적 세계와 쌍을 이루어 만들어지고, 고정화된 관념이라는 점을 일본의 사회과학이 폭로하고 있었던 것이다.[97]

그렇다면 일본의 현실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방법으로서의 아시아'가 제기되었던 것처럼[98], 세계를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방법으로서의 일본'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방법으로서의 일본'을 제기하고자 할 때, 일본연구를 해외지역 연구 속에서 상대화하려고 했던 '초기' 사회과학연구소의 시도는 오히려 특별한 의미를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방법으로서의 일본'은 '사회과학'의 목적에 충실하기 보다는 '비교와 종합, 실증연구'라는 3종 세트의 방법론에 충실하고자 했던 '사회과학연구소의 사회과학'을 통해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고희탁(2010)「전후 일본의 정치학 정체성론 연구: 과학성, 자율성, 주체성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일본연구논총』31권.

이석원(2010)「위기의 사회과학: 전간기(戦間期) 일본에서의 협동체주의와 지역주의」『역사문제연구』23권.

이을상(2011)「막스 셸러의 지식사회학: 그 철학적 토대와 전개」『지식의 형태와 사회1』한길사, p.7.

한영혜(1991)「일본 사회학의 형성과 전개: 성립에서부터 제2차 세계 대전기까지」『사회와 역사』32권.

「回顧と展望・日本におけるソヴェト法研究」『社会科学研究』7巻2/3/4号合併号 1955. p.193.

「経済学40年(宇野弘蔵教授還暦記念座談会)」『社会科学研究』9巻4/5号合併号 1958, p.176.

「アメリカ研究と私」『社会科学研究』16巻4/5号合併号 1965, p.199.

「宇高基輔教授と経済学」『社会科学研究』23巻4号 1972, pp.185-195.

「経済史研究とその国際交流—社会科学研究所25年間の回顧とともに」 『社会科学研究』24巻2号 1972, pp.141-143.

97) 影浦順子(2008)「書評, アンドリュー・バーシェイ『近代日本の社会科学—丸山真男と宇野弘蔵の射程』」『貿易風(中部大学国際関係学部論集)』3号.

98) 竹内好(1978)『方法としてのアジア—わが戦前・戦中・戦後, 1935-1976』創樹社.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研究生活の回顧」『社会科学研究』26巻3/4号合併号 1975, p.311.
「有泉先生の学問をめぐって」『社会科学研究』18巻1号 1966.
「経済学40年(宇野弘蔵教授還暦記念座談会)」『社会科学研究』9巻4・5号合併号 1958.
「社会科学研究所設置事由」『社会科学研究』15巻1号 1963.
「社会科学研究所の15年」『社会科学研究』15巻1号 1963.
「社会科学について」『社会科学研究』15巻1号 1963.
「<対談、加藤周一・久野収>戦後学問の思想」『学問の思想』筑摩書房 1971.
アンドリュー・E・バーシェイ(2007)『近代日本の社会科学―丸山真男と宇野弘蔵の射程』NTT出版.
ヴィクター・D・コシュマン(2011)『戦後日本の民主主義革命と主体性』平凡社.
加藤節(1997)『南原繁―近代日本と知識人』岩波新書, p.5.
高城和義(2007)「戦後日本の社会科学とパーソンズ研究―パーソンズ研究の今日的課題」『帝京社会学』第20号, p.101.
久野収・鶴見俊輔・藤田省三編(1995, 復刊本)『戦後日本の思想』岩波書店同時代ライブラリー.
内田義彦(1959)「知識青年の緒類型」『近代日本思想史講座4, 知識人の生成と役割』筑摩書房 ; 内田義彦(1969)「社会科学の視座」『思想』535号.
内田義彦(1969)「社会科学の視座」『思想』535号.
東京大学百年史編纂委員会編(1987)『東京大学百年史, 部局史4, 社会科学研究所』, pp.3-53.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編(1963)『社会科学の基本問題(上・下)』.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編(1977)『社会科学研究所の30年―年表・座談会・資料』, pp.31-58, p.113.
馬場宏二(1993)「社会科学の三つの危機」山之内靖他編,『ゆらぎのなかの社会科学』(岩波講座, 社会科学の方法1) 岩波書店, p.159.
福島新吾(2003)「社会科学としての政治研究―1947~54」『専修大学社会科学研究所月報』486号, pp.3-10.
山之内靖他編(1993-1994)『岩波講座, 社会科学の方法』岩波書店.
杉山光信(1983)『戦後啓蒙と社会科学の思想』新曜社.
石田雄(1990, 4刷版)『日本の社会科学』東京大学出版会, 1984.
石田雄(2007)「社会科学研究所の60年と日本の社会科学」『社会科学研究』59巻1号, p.143.
松本礼二(1997)「知識人の時代と日本」『思想』872号.
辛島理人(2012)「戦後日本の社会科学とアメリカのフィランソロピー」『日本研究』45号, pp.164-165.
影浦順子(2008)「書評, アンドリュー・バーシェイ『近代日本の社会科学―丸山真男と宇野弘蔵の射程』」『貿易風(中部大学国際関係学部論集)』3号.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宇野重規(2006)「1990年代日本の社会科学—自己反省とその継承」『社会科学研究』58巻1号.
宇野弘蔵(1948)「社会科学の客観性—マクス・ウェーバーの『理想型』について」『社会科学研究』1号.
酒井哲哉編(2006)『「帝国」編成の系譜—「帝国」日本の学知』岩波書店, p.v.
竹内好(1978)『方法としてのアジア—わが戦前・戦中・戦後, 1935-1976』創樹社.
川勝平太(1993)「社会科学の脱領域化」 山之内靖他編, 『ゆらぎのなかの社会科学』(岩波講座, 社会科学の方法1) 岩波書店, p.268.
和田春樹(1980)「戦後日本における社会科学研究所の出発」『社会科学研究』32巻2号.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홈페이지 http://jww.iss.u-tokyo.ac. jp/ (검색일, 2012.12.30.)

❖ 투고일 : 2012.12.31
❖ 심사완료일 : 2013.1.25
❖ 게제확정일 : 2013.2.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